

우크라 종전 '물밑 외교'... 젤렌스키도 알래스카행 가능성

美 나토 대사 "젤렌스키, 미러 회담 참석 가능"... 유럽도 참석 지지 백악관 "3자 회담 배제안해"... 타협 없는 러시아 "입장 변화 없어"

오는 15일 미국 영토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물밑 외교가 한창이다.

회담 결과에 따라 개전 4년째인 전쟁이 분수령을 맞이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참여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매슈 휘태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에 동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종전은 중요한 우선 과제지만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예정이라고 휘태커 대사는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초대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회담에 일부 포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이 CNN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자 정상회담에도 열려 있지

만, 우선 푸틴 대통령이 요청한 양자 회담을 준비 중이라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젤렌스키가 참여하는 회담은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은 당초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참하는 3자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러시아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광범위한 영토를 러시아에 내주도록 하는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의 일환으로 '영토의 일부 교환'을 언급하면서 현재까지 논의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의 불안감이 고조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땅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

러며 영토 양보를 거부했으며 "우크라이나가 빠진 결정은 죽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와 EU(유럽연합)는 영토 양보를 거부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사흘간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13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며 유럽과 나토의 지지를 확보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연합뉴스 등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모든 합의(deal)에는 우크라이나와 EU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전체의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지정학적 미래를 스스로 선택

하는 주권 국가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다시 러시아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는 포괄적 합의를 이룰 기회로 본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확정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서방군을 주둔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유리 우사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를 위해 러시아가 타협 의사를 보였다는 질문에 "러시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멕시코 동부 유카탄 중심 도시 메리다의 팔라시오 레알 에스파냐 연회장에서 열린 제80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연합뉴스

'120년전 애니깽' 눈물 어린 멕시코서 광복 만세 삼창

유카탄주서 80주년 8·15 경축식

10일(현지시간) 멕시코 동부 유카탄주(州)의 한 행사장에서 만난 이들에게서 하나의 특징을 꼽으라면 '어렵곳이 한국인 같은 용모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1만2천km 넘게 떨어진 거리가 무색하듯 이곳에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안부를 물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들로 가득했다.

스페인어로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만 빼면 영락없이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에서 참석자들의 정체성은 무대 앞에 나란히 설치된 태극기와 멕

시코 국기가 웅변하고 있었다.

이날 유카탄 중심 도시 메리다의 팔라시오 레알 에스파냐 연회장에서 제80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다.

2·5세대 한인 후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 한국 독립 역사 개관 설명, 유카탄 주지사 및 메리다 시장 축사(각각 주 정부·시 정부 국장급이 대독), 이상희 주멕시코 대사관 총영사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펼쳐진 사물놀이와 부채춤에 참석자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촬영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짧지만 강렬한 '멕시코식 만세 삼창'이었다.

1936년에 멕시코에서 태어난 '한인 후손 2세' 마리아 알파로 김 양(89) 할머니가 음료를 손에 든 채 건배사 하듯 또렷한 발음으로 "만세"를 3번 선창하자, 곧바로 나머지 참석자들의 메아리 같은 외침이 이어졌다.

김 양 할머니의 부친인 미겔 김 손 선생은 120년 전인 1905년 인천 제물포항에서 영국 상선 일포드 호에 몸을 실은 1천31명(승선객 1천33명 중 사망자 3명과 출생자 1명을 빼고 더한 합계) 중 한 명이다.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연합뉴스

영 70세 이상 운전자 시력검사 탈락 시 면허 박탈 검토

영국에서 70세 이상 운전자가 시력검사에 탈락하면 면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정부가 20여년 만에 최대규모로 도로 안전 법규 개편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개편안에는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의무 시력 검사가 포함될 전망이다.

70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3년마다 시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치매와 같은 질환에 대한 의료진도 받아야 할 수 있다.

그간 영국은 시력 문제로 인한 운전 능력 저하를 운전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추세를 보이자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에서 60세 이상 운전자 도로에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연루된 사례는 2010년 이후 47%나 증가했다.

때문에 당국에서는 시력 저하 등 의료적 문제가 있음에도 면허를 지속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편안에는 또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음주운전 기준치를 낮추고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한 용의자에 대한 기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개편안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가을께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가자 취재 알자지라 기자 5명 폭사...이 "테러리스트 제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취재 중이던 알자지라방송 기자 5명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AFP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소속 기자인 아나스 알사리프(28)가 전날 가자시티의 알사파 병원 정문 밖에 설치된 취재용 천막에 있다가 공습으로 숨졌다. 또 다른 기자인 모하메드 크레이케, 카메라맨 이브라힘 자헤르, 모하메드 누팔, 모아멘 알리리가 함께 변을 당했다.

알사리프 기자는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알자지라 기자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로, 매일 정규 보도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전해왔다고 통신

은 전했다. 그는 사망 직전 엑스(X-엡트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동부와 남부 지역에 집중적인 공습을 가하고 있다고 썼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사실을 인정하면서 알사리프 기자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일원이었다며 공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스라엘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가자로 가장한 테러리스트를 공격한 것"이라며 "아나스 알사리프는 하마스의 한 테러 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하며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부대에 대한 로켓 공격을 추진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가자 가격 ₩ 1,180,000

헤드	단봉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5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가자 가격 ₩ 1,380,000

헤드	단봉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가자 가격 ₩ 800,000

헤드	단봉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성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